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교육방안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이용-

김 속 희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1)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진화

요즈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조금의 과학 기술이 없을 수는 없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이처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은 17세기 서양의 과학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본다.

과학과 기술이 산업에 이용이 되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물질의 힘을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서 인간 정신의 범위까지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점점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체감을 주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을 넓히기도 하였다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존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가족 혈족집단 및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과 개인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간 이성의 발달은 인간을 전통적인 가치에서 분리시키고 정서적 욕구를 억제케 하는 소외된 삶의 형태를 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은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인간의 행위가 이윤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풍조를 낳아 주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발전을 추구하는 무한한 진보를 꾀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은 현대 사회속에서 변화를 주도해 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은 변화가 아닌 진화를 겪고 있다고 본다. 가정의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물자 관리와 인간관리라고 본다.

첫째 물자 관리를 통한 가정의 진화현상은 상당히 뚜렷하다. 한국의 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위력에 놀라기 시작한 년대는 1960년대 이후로 본다. 그 이전에는 한국의 가정에서의 물자 관리는 거의 가정나름으로의 자급자족의 형태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사회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자의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적으로 충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절약하면서 요구에 최저로 충족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각 가정나름으로의 물자 공급수단이 다르며 따라서 각 가정의 유일한 전통이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가정단위의 물자 관리를 하는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서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면서 공장단위로 가정의 물자 공급을 위하여 양산이 되면서 가정과 지역사회간의 상호 관련이 밀접해지고 각 가정의 전통이나 특색이 없어지는 일체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상대적인 비교가 되며 물자의 풍부함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서로서로가 긴장을 하게 되는 긴장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사회에서는 물질 양산을 통한 다양성을 창출해냄으로써 가정생활의 물질관리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주었다.

현대의 산업사회를 지나서 미래를 전망해 볼 때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지구의 유한성을 절감하면서 무한정의 소비형태에서 다양성의 균형을 이룩해야 되는 형태로 변화를 자초해야 된다고 본다. 한 가정의 물질의 관리범위는 지역사회와의 빈번한 관계에서 더 확대되어서 지구적인 안목으로 관련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산업사회에서의 일체감이 다시 후기 산업사회 형태의 다양성으로 변모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처해 있다고 본다.

둘째로 인간관계 측면에서 본 가정의 진화의 현상은 물자 관리측면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금세기 중반부터 노골화 되어온 가족 계획의 실천은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러 남매의 형제들과 성장과정을 나누고, 여러 세대가 한 가족으로 살면서 보여준 교육의 현상이 상실되면서, 가족관계의 원칙이 가족집단의 관계에서 나누는 관계가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통신 기기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인간과 기계사이의 관계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소의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물질의 풍요속에서 고독과 불행을 느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의 물질적 빈곤이 있을 당시에는 인간적인 친근감과 격이 없는 가족관계로 보다 행복을 누리던 과거를 동경하는 풍조까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생활기구나 통신기기의 출현은 현대인의 생활의 편리와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욱더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만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사랑과 신의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오히려 퇴락해지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점을 강화시키는 과제가 미래의 가정학에서 담당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기능을 크게 물질관리와 인간관리라고 나누어서 생각하였지만 이 두 기능이 서로 엮여져서 인간이 애정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물질관리 이어야 되며 또한 낭비없는 생활을 통해서 가족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물질을 관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이 서로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해서 가정의 기능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의 종합기능을 하는 곳이며 이론적으로

따져지지 않는 요인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2)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방향

현재까지 가정과 교육은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정사의 내용을 요목별로 나누어서 가르쳐 왔다. 그리고 가정사의 대부분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로 수행해 내려온 한국의 전통과 나아가서 인류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여학생의 전용 교과로써 존재해 왔다. 가정이라는 교과목의 목표가 가정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낼 것인가에 두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가정과는 가정사의 처리 이전에 가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서 가정을 형성하는 근본은 남여가 동참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교과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여의 만남에서부터 혼인이 이루어 지는 과정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남편으로써 아내로써의 책임과 각오를 인식 시켜야 하며 가족 계획의 원리와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이란 곳은 인류가 쉬고 새롭게 힘을 보충해서 다음 일을 감당해 내는 지고의 유일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은 그 사회에서의 소비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소비 기능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모든 기능을 하는 목적은 안식과 애정을 자아내기 위한 환경이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가정은 장소가 아니다.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 하나하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강조해왔던 과거의 가정학에서 가정은 애정과 안식을 주는 환경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다. 가정이 환경이라면 이는 반드시 인간이 살기 위한 인간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관리하는 데에도 인간을 살리기 위한 관리이어야 하며 또한 인간을 관리하는 데에도 환경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 가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애정과 안식을 주는 지고의 종합환경이라는 전체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르는 가정과 교육의 방향 제시

그동안 문교부와 교육부에서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과를 가정 : 기술이라는 학과명으로 가정을 기술 차원과 대등한 교과목으로 전락시켜온 지가 수십 년이었다. 가정을 한낱 생활기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가사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아온 소치이다.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된 책임을 전적으로 문교부나 교육부의 가정 담당관의 생각 부족의 소치라고 일축해 버리기에는 가정학자와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들의 비적극적인 학문적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번 실망스러운 것은 금번 어렵게 성취한 가정 단독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역시 전과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가정을 한낱 가사 처리하는 곳으로 한정 내 놓고 교육과정이 형성된 느낌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되게 된 책임을 교육부의 관계관에게 우선으로 묻고 싶은 심정이고 둘째로는 교육부의 담당관도 가정학을 전공한 자로써 과거의 가정 : 기술 교과목의 모순을 충분히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교육과정을 짤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고 본다.

이미 짜여진 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우리는 종합성 또는 전체성을 최대로 강조해야 된다.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가정은 장소가 아닌 인간의 지고의 애정과 안식을 공급하는 종합적인 환경이라고 하였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생에 주는 뜻을 되새기게 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가정 기기 하나하나가 나의 생활에 미치는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서 나의 생활 환경에 주는 변화를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 이운을 최대로 내는 효율성이 강조된 의사 결정 보다는 금전적으로는 좀 손해가 있다고 해도 생의 의미를 강조한 결정이 이제는 강조되어

야 한다고 본다.

금세기를 지배하는 산업화 문명이 우리의 생존권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농업 문명 더 나아가서 구석기시대의 채취 수렵 경제 쪽으로 가려고 하여도 이는 우리의 선택을 이미 넘어서 우리는 별 수 없이 산업문명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인 이념은 민주 사회의 체제속에 빠져있다. 자유 민주주의 강점은 다양성에 포용한 평형(Complex Homeostasis)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래의 세계는 무한한 다양성이 전개될 것이며 이 다양성의 요인들이 가정의 종합적인 환경 조성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 된다.

과거 이조시대로 거슬러 올라 가보면 가정과 사회가 하나의 독립된 대립관계로서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의 가문이 중요했고 하나의 명문가로써 그 사회에 군림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자유 민주 사회는 가정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 사회의 구성 단위이면서 또한 사회는 가정의 외곽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가정은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소단위로써 사회와 끊임없는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정은 변화 한다기 보다는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교과목의 초점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하려면 가정과 교사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만 또한 개인의 노력이 뒤 따라야 된다고 본다. 남여 공수 과목으로 가정이 단독 교과로써 자리를 굳히려면 가정과 교사들의 배전의 노력에 우리는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